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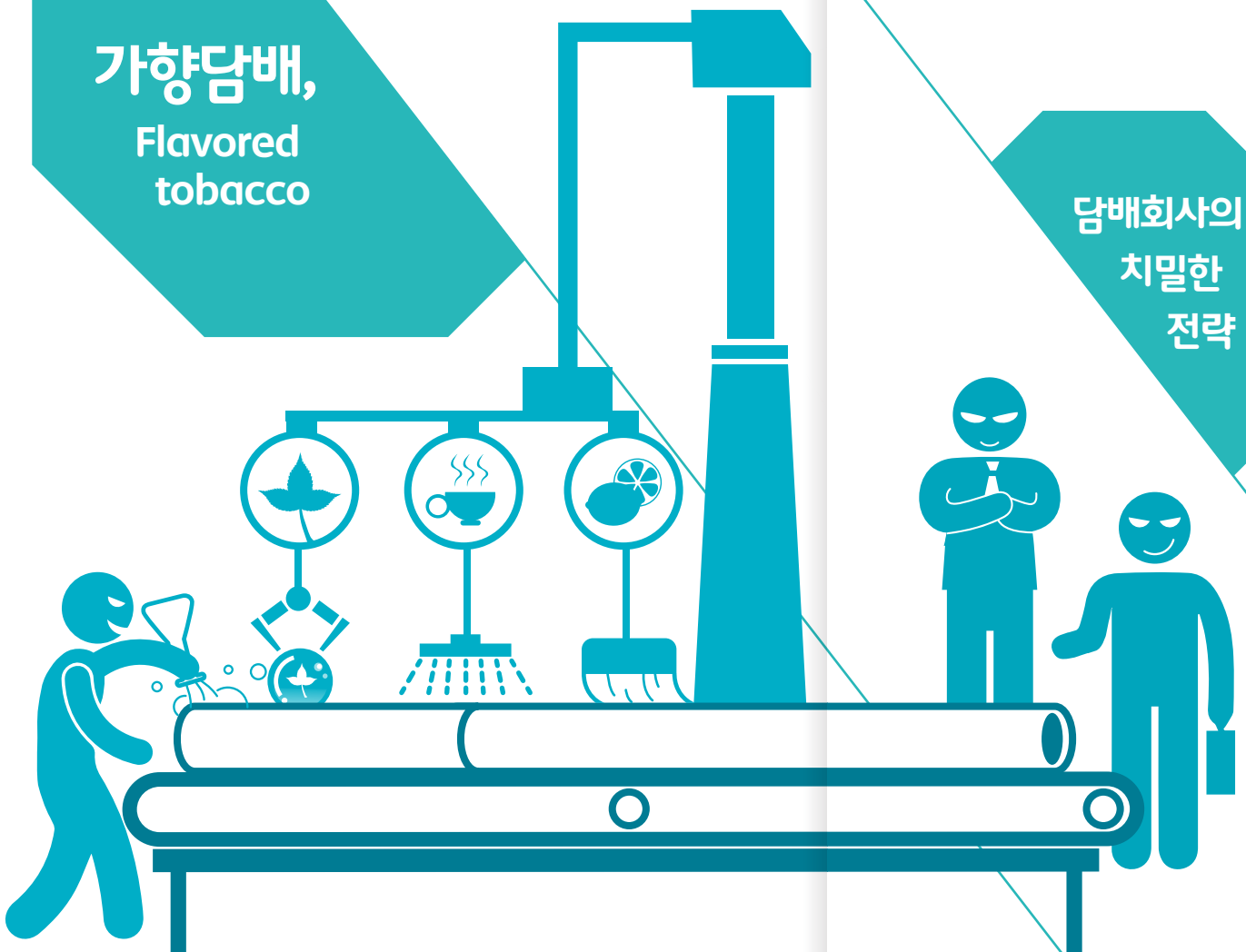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담배회사의
치밀한
전략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세계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NO

JUNE 2016
Vol. 35

6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 가향담배, 체계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02

Monthly Updates

04

- 이 달의 정책 04
- 이 달의 연구 06

Monthly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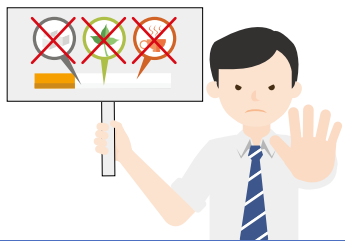
08

- 가향규제 출발선에 선 우리나라 09
- 담배회사의 가향방법 09
- 국외 가향담배 규제사례 10
- 우리나라 가향규제 고려사항 13
- 가향담배 규제, 서둘러서도 늦어서도 안 된다 15

Monthly Index

16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16



가향담배(Flavored tobacco), 체계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1 담배회사의 가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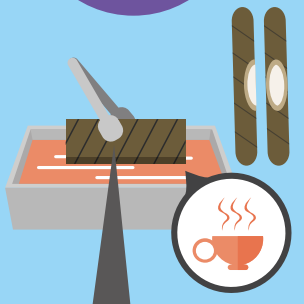
궐련 (Cigarettes)



전자담배 (E-Cigarettes)



엽궐련(Cigars), 시가릴로 (Cigaril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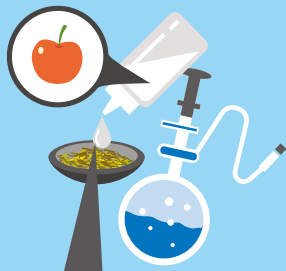
담배 마는 종이(wrapper)
향료에 담가 적심

말아피우는 담배 (Roll-your-own cigarettes)



담뱃잎
향료를 주입

물담배 (Water pipes)



담뱃잎, 당밀 등
혼합물에 향료 첨가

씹는 담배 (Chewing Tobacco), 코담배(Snuff), 스누스(S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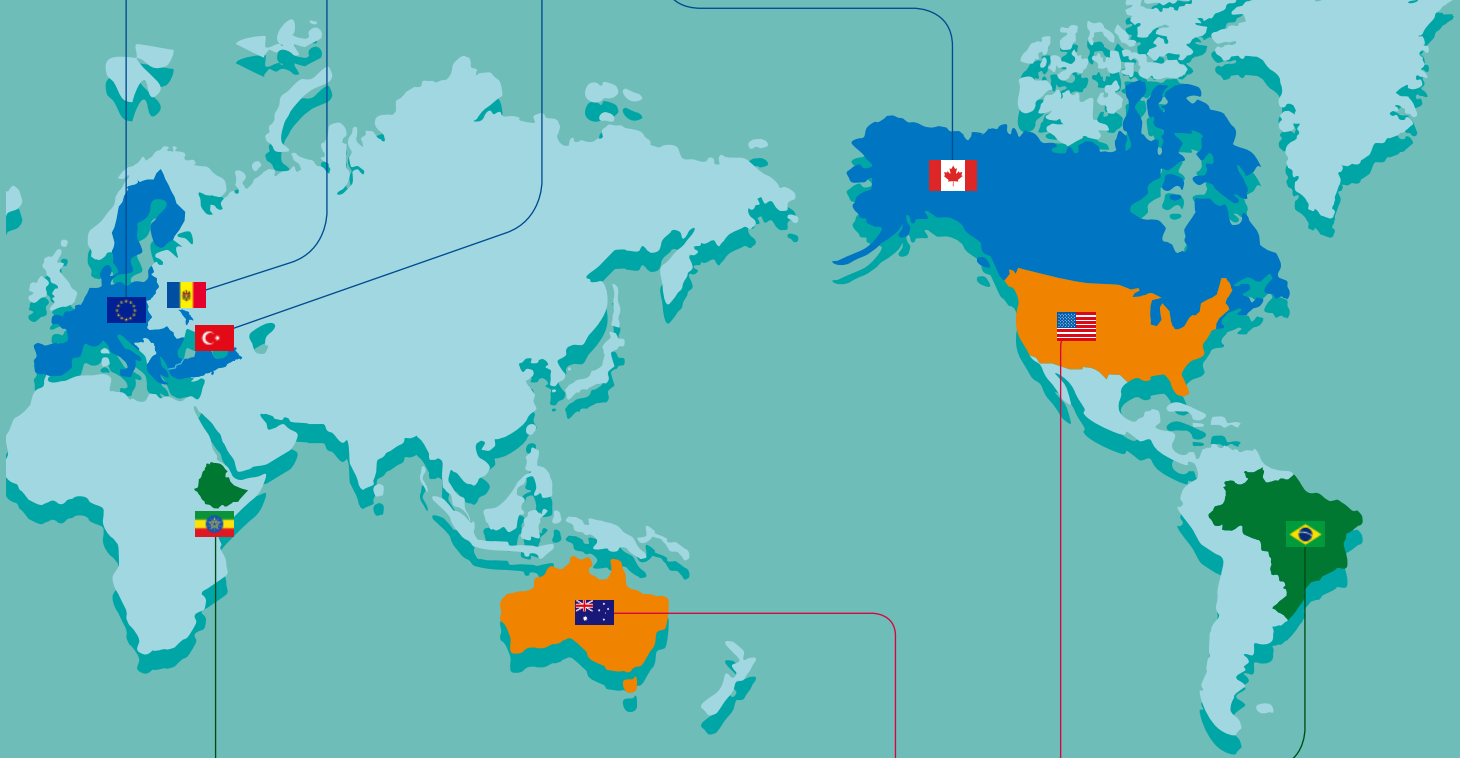
담뱃잎
향료 첨가

2 각국의 가향규제정책



EU	가향물질 함유 규제	
몰도바	모든 담배제품 규제	
터키	멘톨 규제	*
캐나다		

*시행 예정이거나 도입 추진



에티오피아	브라질
가향물질 함유 규제	
모든 담배제품 규제	
멘톨 규제	

호주	미국
가향물질 함유 규제	
모든 담배제품 규제	
멘톨 규제	

※ '담배제품'의 정의 및 범위는 국가별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함

2016. 6.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미국, 2015년 성인 흡연율 크게 감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 발간한 2015년 미국 흡연율 국가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 성인 흡연율이 20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하여 15%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 성인 흡연율 17%에 비해 2%p 감소한 수치이며, 기존에 연간 1%p 이하로 감소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 2015년 흡연율의 구체적인 감소 요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금연 광고 캠페인,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지정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자담배의 시장 확대와 이용 증가 또한 흡연율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지 오히려 담배 사용 증가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도 카르나타카 주, 전자담배 전면 금지

인도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전자담배의 잠정적인 위험성을 우려하여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배포, 공급,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 인도의 경우 니코틴 제품이 약물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에 따라 니코틴 중독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전자담배 및 기타 유사제품들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자격 취득 없이 온라인 유통 등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암 예방 위원회 등의 권고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에 관한 규제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인도의학협회는 일찍이 전자담배가 또 다른 니코틴 중독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6월 6일부터 공공장소 내 금연 시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덟 개의 공공장소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 6월 6일 발효되었다. 이는 종교,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 기관과 사회 및 자선기관 등을 포함하며 사무 공간, 정부기관, 공장, 은행 및 모든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흡연도 금지한다. 이외에도 식품 및 음료 공장, 가솔린, 가스, 연료 유통 시스템, 창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및 기타 지정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또한 금지된다. 공공시설 내에 흡연구역이 있을 경우에 시설 주인은 이를 반드시 독립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흡연구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를 어길 시 시설 관리인에게 최대 SR20,000(한화 약 6,120,000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SR200(한화 약 60,000원)을 부과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담배 판매 허가 기준 강화 법안 상원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담배 판매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켈런 및 담배 제품 허가에 관한 법(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의 “판매 소매점(retail location)”의 정의를 “담배 제품이나 담배 용품 판매 수익이 총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매업 담배 가게”로 개정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다. 현재 “판매 소매점(retail location)”은 “켈런이나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소매점과 자판기”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된 담배 판매 소매점의 정의에 따라 담배 판매 허가 기준도 함께 바뀌게 된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편의점과 식료품 가게에서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상정되었으며 찬성 21표, 반대 16표로 상원을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에 전자담배에 관하여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안을 상정한 밥 위코우스키(Bob Wieckowski) 상원의원 측은 최근 법이 전자담배를 담배 제품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전자담배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 6.
Monthly Updates

이 달의 연구



이 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스위스의 금연구역 정책이 조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연실험설계 연구

Vicedo-Cabrera, A. M., Schindler, C., Radovanovic, D., Grize, L., Witassek, F., Dratva, J., ... & Perez, L. (2016). Benefits of smoking bans on preterm and early-term births: a natural experimental design in Switzerland.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5.

본 연구는 자연실험설계(natural experimental design)를 이용하여 스위스 지역별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 대한 금연구역 정책의 수준 차이가 조산, 초기 출산 등의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의 스위스 신생아 출생 등록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금연구역 정책이 조산(37주 임신기간, preterm births)과 초기출산(37-38주 임신기간, early-term birth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스위스 주(州)별 단속 시계열(canton-specific interrupted time-series)과 임의 메타 분석(random 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금연구역 정책의 수준에 따른 차이와 상황적인 특성은 메타회귀 분석을 하였고 정책의 영향을 받을 때의 임신 기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사건 접근(time-to-event approach)이 사용되었다. 조사 결과, 금연구역 정책이 조산의 위험을 3.6%(95% CI, -9.3% to 2.5%) 낮추고, 초기 출산을 5.0%(95% CI -7.5% to -2.5%) 감소시켰다. 금연구역 정책의 수준(부분적, 포괄적) 정도에 따른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보다 포괄적인 금연구역 규제가 있는 주에서 조산 위험 감소가 더 큰 것으로(-6.8%; 95% CI -12.1% to 0.1%)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스위스에서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 대해 더 포괄적 수준의 금연구역 정책을 도입한 주에서 보다 건강한 신생아 출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금연구역 정책 강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담배 제품 단일, 이중, 다중 사용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Ali, M., Gray, T. R., Martinez, D. J., Curry, L. E., & Horn, K. A. (2016). Risk profiles of youth single, dual, and poly tobacco user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8(7), 1614-1621.

현재 담배제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담배 규제 의제를 위해 현재 담배 사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청소년담배조사로부터 지난 30일 간의 담배 제품의 단일사용, 이중사용, 다중사용 자료를 얻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를 통해 각각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n=24,658). 조사 결과,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이용한 청소년 중(n=5,030), 대부분은 다중 담배 제품 사용자(55.9%, n=2,813)였다. 그 다음으로는 단일사용자(28.4%, n=1,406), 이중사용자(16.1%, n=811) 순으로 높았다. 다변량 모형(multivariat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사용자(relative risk ratio [RRR]=3.14, $P < .001$)와 이중사용자(RRR=2.48, $P < .001$)에 비해 다중사용자가 더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나타내었다. 다중사용자의 경우에 단일사용자(RRR=0.68, $P < .01$)나 이중사용자(RRR=0.77, $P < .05$)에 비해서 금연 의도를 덜 나타냈다.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중사용자가 단일 제품 사용자(RRR=1.54, $P < .05$)와 다중사용자(RRR=0.56, $P < .001$)에 비해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와 담배 사용이 증가하였고, 금연 의도는 감소하였다. 반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다중사용자나 단일사용자에 비해 이중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자담배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간접흡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26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조사

Hajizadeh, M., & Nandi, A. [2016]. The socioeconomic gradient of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children: evidence from 26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5.

본 연구는 26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LMICs)를 조사하여 사회경제학적 차이에 따라 아이들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실내 흡연에 노출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5세 이하 아동의 일상적인 간접흡연 노출을 조사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구통계학적 건강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가구표본(n=369,654)을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집중도와 절대 집중도(relative and absolute concentration indices: RC, AC) 지표를 사용하여 각 국가와 각 국가의 도시 및 시골 지역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부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정량화 하였다. 조사 결과, 아이들이 일상적인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정도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랐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는 도시지역에 비해 시골지역에서 더 많았다(median=18% < 24%). 상대 집중도와 절대 집중도(RC, AC) 분석 결과, 일상적인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동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RC, median=-0.179, IQR=0.186 and AC, median=-0.040, IQR=0.055). 또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 중에서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례가 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간접흡연 노출에 있어서의 사회경제학적인 불평등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골 지역 아동, 사회경제학적 취약 가정 아동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향규제 출발선에 선 우리나라

비흡연자,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신규 흡연자로 유도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으로 알려진 가향담배(flavored tobacco)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바로 지난달 규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가향담배 규제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은 2015년 6월 금연이슈리포트(vol.25) 참고

정부는 최근 가향물질이 함유된 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 가향물질이 담배의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데 이용되는 점 등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향물질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향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국내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가향물질의 규제범위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그 필요성을 깨닫고 가향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해 그 출발 선상에 서게 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조차 없을 만큼 시작이 다소 늦었을진 몰라도 담배회사의 전략 파악과 국외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담배회사의 가향방법

담배회사들은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비흡연자,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신규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 담배에 가향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담배회사 내부문건 등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부터 담배회사들은 달콤한 향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혹하려는 전략을 논의해왔고 그만큼 그들의 기술은 오래토록 발전해왔다.

가향은 크게 **1차 가향(casing)**과 **2차 가향(top flavoring)**으로 나뉜다. 담뱃잎(tobacco)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알칼리성을 띄게 되어 맛이 더욱 아리고 매캐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산도를 조절함으로써 담배 연기를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저마다 개발하여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설탕, 감초, 코코아 등을 사용하는 1차 가향이다. 담배회사마다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향료에 담뱃잎을 담그거나(dipping), 담뱃잎에 향료를 분사(spraying)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담배제품군이 나뉘는데, 이를테면 사용되는 향료의 양에 따라 쥘련(cigarette), 엽쥘련(cigar) 등으로 담뱃잎의 용도가 결정된다. 이후 각 담배제품의 거의 마지막 공정에서 한번 더 가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가향이다. 담배에 오렌지, 포도 등 각종 과일, 커피, 멘톨 등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다양한 향을 덧입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담배제품에 향을 덧입히는 과정은 담배회사의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공정이지만, 흡연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향을 전달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왔다. 일반 **퀄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뱃잎에 향료를 입히는 과정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캡슐담배와 같이 필터(filter)에 향료를 넣은 캡슐을 내재하거나, 아예 향이 나는 섬유(polymer-based flavor fiber)를 개발하여 필터에 섞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담뱃잎을 감싸고 있는 **퀄런지(cigarette paper)**에도 아주 미세한 향기 캡슐(microencapsulation)을 도포하며 심지어 담배를 열었을 때 담배와 맞닿아있는 담뱃갑 내포지(foil wrapper)에 가향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가향전략은 일반 퀄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퀄런의 담뱃잎과 퀄런지에 향을 입히듯, **엽퀄런**이나 **시가릴로(cigarillo)**, **말아피는담배(roll-your-own cigarette)** 등에도 담뱃잎과 담배마는종이(wrapper)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향을 하며, 최근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코담배(snuff)**, **스누스(snus; 머금은 담배)**, **물담배(water pipes)** 등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종담배제품에도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하여 시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카토마이저에 넣는 니코틴 액상에 다양한 향료를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어느 담배제품보다 가향전략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2014년 1월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향 전자담배 액상이 7,700종에 이르며, 월 평균 240종의 새로운 가향 액상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배업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흡연자를 양산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과 전술로 '가향담배'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외 가향담배 규제사례

이와 같이 치밀하고 다각적인 담배업계의 전략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일부 국가들은 가향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규제 사례는 **규제범위**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가향규제를 **담배제품의 종류**와 **가향물질 종류**에 대해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국가, 혹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호주와 미국이 일부 담배제품 종류에 대해,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의 첨가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일부 담배제품에 대한 멘톨 외 가향 금지 : 호주, 미국

호주는 거의 모든 주(州)정부에서 가향을 규제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수도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이니아 주는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업계의 가향전략을 규제하기 위해 과일향이나 사탕류의 향을

함유한 껀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 주정부도 2010년부터 청소년을 겨냥하는 담배제품('youth-oriented' product)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및 포장뿐 아니라 과일향 및 사탕류 향이 함유된 껀련의 판매도 이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9년부터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따라 멘톨을 제외한 바닐라, 초콜릿, 체리, 커피 등 "특정 향(characterizing flavors)"을 함유한 껀련의 제조, 마케팅 및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껀련의 담뱃잎뿐 아니라 껀련의 구성을 이루는 필터, 껀련지 등의 가향까지 규제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가향물질 규제범위에서 멘톨은 제외됨에 따라 멘톨이 함유된 껀련이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향 껀련이 되어, 2012년을 기준으로 껀련 시장의 31%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13년 한 보고서를 통해, 멘톨 함유 껀련이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흡연 시작을 유도하고 더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며 멘톨 비함유 껀련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며 멘톨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다가 가향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가 껀련에만 한정되어있는 법의 한계를 이용해, 담배업계는 엽껀련,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 전자담배 등 껀련 외 담배제품에 가향을 하여 시판하고 마케팅하기 시작했다. 미국 2013-2014년 담배건강영향조사(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결과에 따르면, 무연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12-17세 청소년의 68.9%가 가향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사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무연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무려 81%가 가향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껀련 외 다양한 담배제품의 가향도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담배제품에 대한 멘톨 포함 가향 금지 : 캐나다, EU, 터키, 몰도바

한편, 제품의 종류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지만 가향물질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특히, 담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향물로 알려져 있는 멘톨 성분을 규제하거나 규제 계획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방법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모든 껀련, 블런트 랩(blunt wrap)¹⁾, 소형 엽껀련(little cigar)²⁾ 중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소매판매와 면세판매를 일체 금지하였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들 담배제품의 가향을 금지하는 이유를 "가향을 통한 청소년 대상 담배 판촉 규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블런트 랩과 소형 엽껀련에 과일 향과 초콜릿 향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향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소형 엽껀련 판매량이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8배 이상 급증했으며, 2008년 15-17세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24%가 최소 한번 소형 엽껀련을 사용해보았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의 소형 엽껀련 사용은 당시 보건당국의 큰 이슈였다. 따라서 보건부는 이를 감안해 규제 대상제품의 종류를 제한하였으며, 규제 성분 역시 아동이나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첨가물 또는 가향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선하였다. 그 결과, 엽껀련은 가향규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멘톨 성분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블런트 랩(blunt wrap) : 담배로 만든 종이 또는 튜브 형태로 주로 껀련 껀면에 마는 형태, 담배마는종이와 유사

2) 소형 엽껀련(little cigar) : 엽껀련 중 중량이 1.4g 이하이거나 껀련 필터가 있는 것

그러다 지난 2015년,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가향금지 담배제품의 범위에 연결된 가운데 중량이 6g 이하인 제품까지 포함하여 기존의 소형연결된 기준(중량 1.4g 이하)을 의도적으로 초과하여 가향담배를 제조·판매하던 담배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가향 물질의 종류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5월 노바스코샤 주를 시작으로 알버타 주, 뉴브런스윅 주에서 멘톨을 첨가한 껌련 또는 기타 담배제품을 금지하기 시작하였으며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을 준비 중이다. 2016년 4월에는 연방 보건부가 멘톨을 첨가 금지 성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특히 2013-2014년 청소년 담배사용 조사(Youth Smoking Survey) 결과 캐나다 고등학생 흡연자의 30%가 멘톨 담배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럽연합(EU)은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의해 2016년 5월 20일부터 껌련과 말아피는담배에 가향이 금지되었다. 해당 조항에서는 담배의 맛이나 향을 개조하기 위해 필터, 종이, 포장지에 가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캡슐을 사용하여 가향을 하는 등 각종 가향 기술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멘톨 역시 가향물질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담배제품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3% 이상인 제품군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조치가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멘톨 담배의 제조 및 판매 금지는 4년 후에야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새롭게 적용되는 가향담배 금지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담배제품에의 가향 유무를 파악하는 절차 또한 수립하였으며 독립적인 자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 및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터키**는 지난 2012년 담배 및 주류 규제 위원회(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s Council) 결정을 통해 비타민, 카페인, 타우린, 야생바닐라 등 총 43종에 달하는 물질을 껌련과 말아피는담배의 제조에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사용 금지 물질에 멘톨과 박하 추출물, 박하 오일 등 멘톨 파생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터키에서 제조되는 담배뿐만 아니라 터키로 수입되는 담배에까지 적용되며, EU 담배규제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소매 판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몰도바** 역시 2015년 7월에 채택한 포괄적 담배규제법에 가향담배 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멘톨 담배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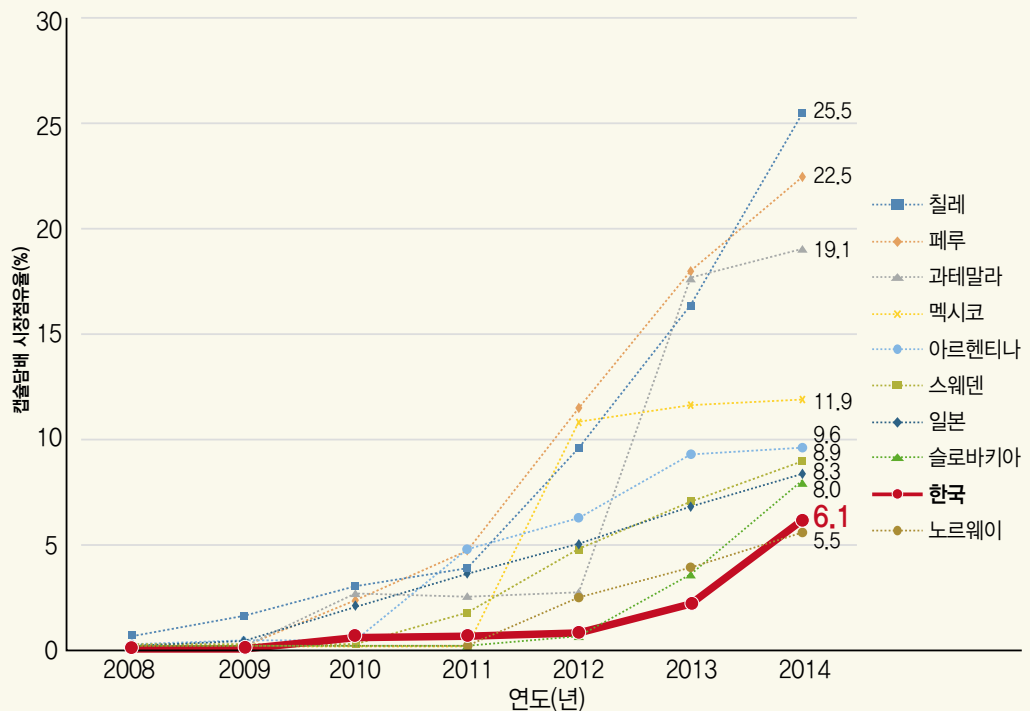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을 포함한 가향 금지 : 브라질, 에티오피아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법에 정의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하여 멘톨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가향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한 사례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을 포함하는 가향물질 및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채택한 국가는 **브라질**이다. 그러나 2012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담배업계의 소송으로 현재까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2015년 3월에 발표한 담배규제법에 따르면 멘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제품의 판매, 유통, 도매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타민, 과일, 야채와 같이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향규제 고려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가향담배 제품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국가 내 담배소비 행태를 고려하여 부분적 또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담배소비 행태 및 향후 담배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공식적인 가향담배 제품의 반출, 유통 및 판매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 시장의 급성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BAT코리아의 경우 캡슐 제품만 놓고 보면 지난 1년 새 40%의 급성장을 하였으며, KT&G 역시 지난 2013년 출시한 캡슐형 담배인 '에세 체인지'가 현재까지 90억 개비 이상 판매되고 '에세 체인지 1mg'의 경우 출시 3년 만에 국내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캡슐시장의 성장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빠른 편인데, 2014년 전 세계 캡슐시장 규모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9위의 캡슐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장규모보다도 그 성장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인데, 캡슐담배가 일부 대학가 주변에서는 2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담배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Thrasher JF, Islam F, Barnoya J. et al., (2016)

가향담배 규제와 관련하여 전자담배 제품에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자담배의 가향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나아가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 '호기심(22.9%)',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18.9%)', '맛 또는 향이 좋아서(18.9%)'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 담배에 가향물질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가향물질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담배의 건강 폐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담배 본연의 쓰고 텃텃한 맛을 조작하여 담배 사용을 조장한다는 경고가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률이 소폭 감소한 반면, 궤련과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은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며 전자담배의 가향 문제에 대한 보다 시급한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구분		'11	'12	'13	'14	'15		
						전년대비 증감(%p)	전년대비 증감률(%)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전체	4.7	3.7	3.0	5.0	4.0	-1.0	-20.0
	남학생	7.3	5.8	4.7	8.1	6.2	-1.9	-23.5
	여학생	1.7	1.5	1.1	1.5	1.5	0.0	0.0
전자담배 사용자의 일반담배 동시 사용률	전체	76.4	74.8	74.0	77.5	80.8	3.3	4.3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당해연도 사용률-전년도 사용률)/전년도 사용률 x 100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가향담배 규제, 서둘러서도 늦어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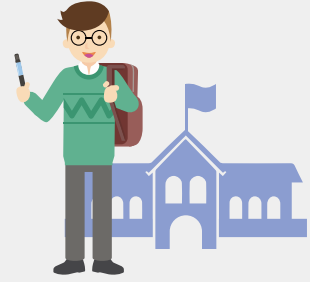
정부의 2018년 가향담배 규제 방안 마련 계획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조사와 제품의 성분 유해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급성장하고 있는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정책인 만큼 가향담배 규제 정책 역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나 조사를 기획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향담배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 즉 정책 목적과 목표에 대한 관계부처 및 사회 전반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향담배의 규제 목적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예방이라면, 업계의 전략 변화 속도에 뒤처지는 정책으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가향담배를 부분적 규제에서 점진적인 확대를 피할 것인지, 처음부터 포괄적인 규제를 통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이다.



이 달의 지표에서는 담배 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 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Prevalence of e-cigarette use by youth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전자담배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액상에 포함된 니코틴이 중독을 일으켜 결국 ‘꺄련(cigarette) 흡연으로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담배와 유사한 외관과 피우는 행태 자체로도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용어 및 지표 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담배는 보다 정확하게 “전자식니코틴전달체(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로 정의되며,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사용자가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기기를 말한다. 성인 전자담배 사용률과 마찬가지로, 꺄련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흡연율 산출 방법을 전자담배에 적용하며, 현재까지의 사용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평생사용률’과 현재 사용여부를 반영한 ‘현재사용률’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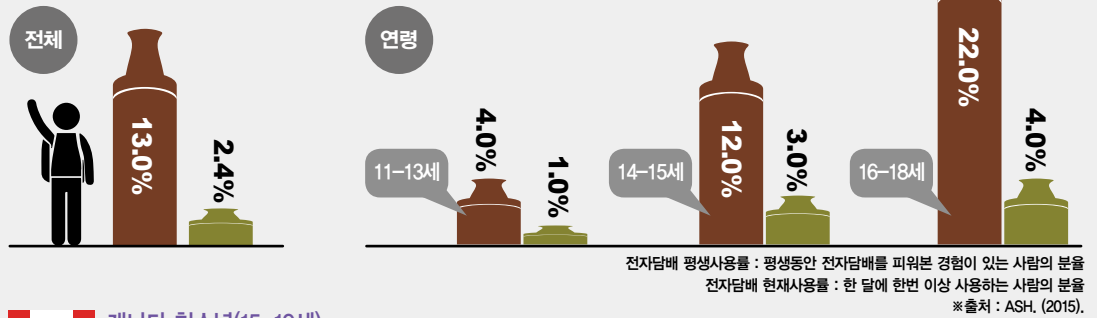
※2016년 금연이슈리포트 5월호 ‘이 달의 지표(성인 전자담배 사용률)’ 참고


국내외 최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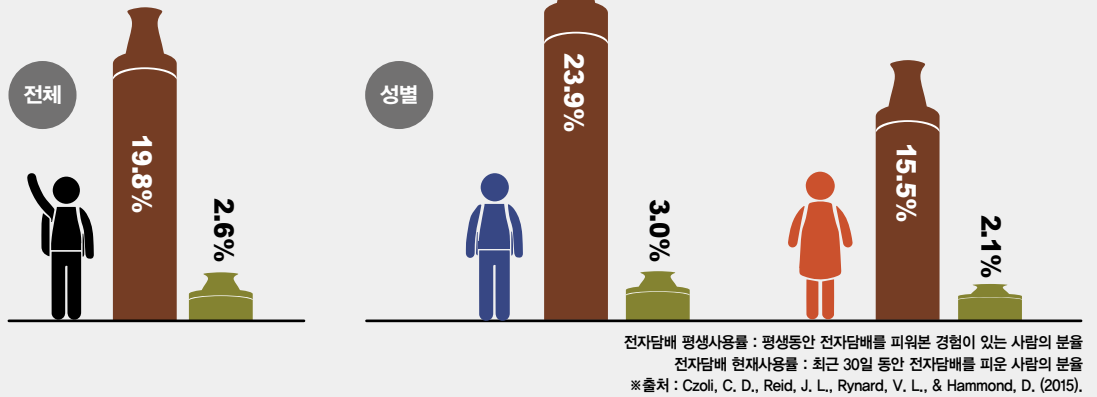
| 세계의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영국의 청소년(11-18세)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평생사용률과 현재사용률은 각각 13.0%, 2.4%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16-18세가 11-13세, 14-15세보다 높아 고학년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6-18세의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이 22.0%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 청소년(15-19세)의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은 19.8%, 현재사용률은 2.6%로 나타나, 유사 연령대로 비교했을 때 영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영국 청소년(11-18세)
전자담배 사용률(2015)



 캐나다 청소년(15-19세)
전자담배 사용률(2013)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고등학생 16.0%, 중학생 5.3%로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동일시점 궐련 현재흡연율(고등학생 9.3%, 중학생 2.3%)보다도 높은 수치로, 궐련 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방안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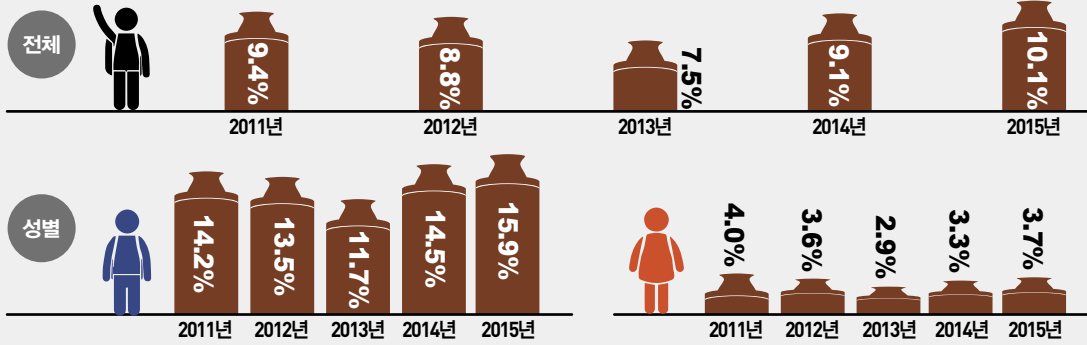
 미국 청소년
전자담배 현재사용률(2015)



| 우리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우리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기존에는 궐련 관련 현황만 조사했으나, 급증하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1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문항을 신설하여 사용률을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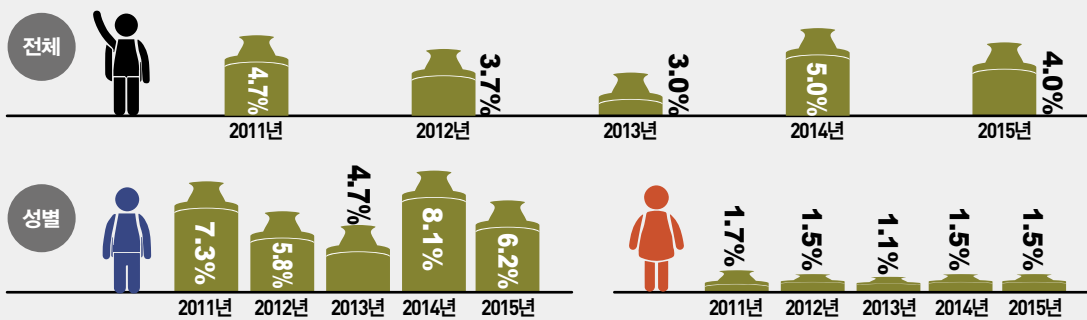
학교급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 %)	중학교	6.8	5.5	4.0	4.6	5.7
	고등학교	11.9	12.0	10.8	13.3	14.0

평생동안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출처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평생사용률은 10.1%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각각 12.2%p, 8.3%p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학교급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위 : %)	중학교	3.2	2.4	1.7	2.3	2.0
	고등학교	6.1	5.0	4.2	7.4	5.7

최근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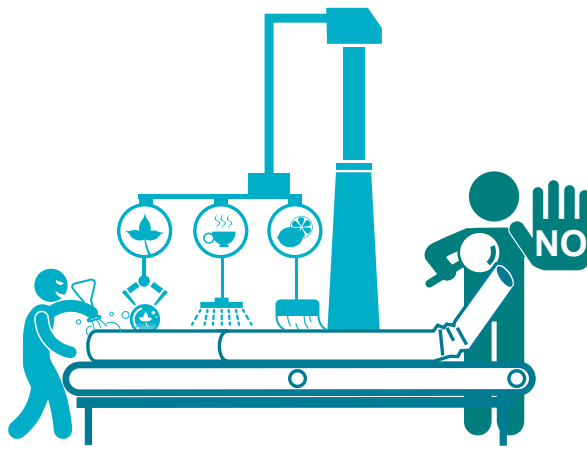
※ 출처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5).

반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4.0%로 전년(5.0%)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남학생과 고등학생의 사용률이 각각 1.9%p, 1.7%p 감소하여 성별 및 학교급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국외 현황과 비교할 때 다소 낮아보이지만, 국가별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관리체계 차이를 감안해야 하므로 쉽게 단정지을 순 없다. 다만, 현재사용률이 다소 감소한 반면 평생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5). 온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광고분야)
- '금연열풍' 담배시장 죽 쏘는데 캡슐담배는 불티난다고? [2016.7.1.]. EBN. <http://www.ebn.co.kr/news/view/838591>
- American Lung Association. (2007). AN EMERGING DEADLY TREND: WATERPIPE TOBACCO USE. Available at http://www.lungusa2.org/embargo/slati/Trendalert_Waterpipes.pdf
- ASH. (2015).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among children in Great Britain. Available at http://www.ash.org.uk/files/documents/ASH_959.pdf
-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 (2014). Smokeless Tobacco Products. Available at <http://cyanonline.org/wp-content/uploads/2013/06/Smokeless-Tobacco-2014-Update.pdf>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FLAVORED TOBACCO PRODUCTS ATTRACT KIDS. <https://www.tobaccofreekids.org/research/factsheets/pdf/0383.pdf>
- Canada Cancer Society. (2013). Examples of flavoured tobacco products sold in Canada. Available at <https://www.cancer.ca/~media/cancer.ca/CW/For%20media/Media%20releases/2013/flavoured-tobacco---Canada---examples---October-2013.pdf>
- Canada: Patterns and Trends, 2015 Edition, Special Supplement. Waterloo, ON: Propel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Impact, University of Waterloo. Available at http://www.tobaccocontrol.ca/2015/TobaccoUseinCanada_2015_EcigaretteSupplement.pdf
- Cancer Council Victoria. (2012).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Fourth Edition. Available at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2-tobacco-products/12-8-flavoured-cigarettes/>
- Council Decision from the 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 Agency.(2012). Council Decision Regarding the Evaluation of Ingredient Notification and Data Found on the Toxicological Data Tables. Decision No. 6896.(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tobaccocontrolaws.org/files/live/Turkey/Turkey%20-%20TAPDK%20Decision%20No.%206896.pdf>
- Council Decision from the Tobacco and Alcohol Market Regulation Agency.(2015). Council Decision on Amending the Council Decision Regarding the Evaluation of Ingredient Notification and Data Found on the Toxicological Data Tables. Decision No. 9010.(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tobaccocontrolaws.org/files/live/Turkey/Turkey%20-%20Decision%20No.%209010%20re%20Menthol.pdf>
- Czoli, C. D., Reid, J. L., Rynard, V. L., & Hammond, D. (2015). E-Cigarettes in Canada-Tobacco Use in Canada: Patterns and Trends. Special Supplement. Waterloo, ON: Propel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Impact, University of Waterloo. Available at http://www.tobaccocontrol.ca/2015/TobaccoUseinCanada_2015_EcigaretteSupplement.pdf
- Ethiopian Food, Medicine and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uthority.(2015). Tobacco Control Directive No 28/2015. Available at <http://www.fmhaca.gov.et/documents/Tobacco%20Control%20Directive%20English%20version%20March%202015.pdf>
- European Commission. (2014). 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 Available at http://ec.europa.eu/health/tobacco/docs/dir_201440_en.pdf
- European Commission. (2016). 10 key changes for tobacco products sold in the EU. Available 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762_en.htm
- Flavored Cigars. (n.d.). Retrieved July 01, 2016, from <http://onlinecigarshop.com/content/13-flavored-cigars>
- Health Canada. (2011) An Act to amend the Tobacco Act(2009). Frequently Asked Questions. Available at http://www.hc-sc.gc.ca/hc-ps/tobac-tabac/legislation/federal/amend_faq-modif-eng.php#q4
- Health Canada. (2011). Little Cigars...Big Concern. Available at <http://healthycanadians.gc.ca/publications/healthy-living-vie-saine/cigar-concerns-cigare-inquietudes/alt/cigar-concerns-cigare-inquietudes-eng.pdf>
- Ottawa moves to ban menthol cigarettes, citing appeal to youth. (2016). The Globe and Mail. Available at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ottawa-moves-to-ban-menthol-cigarettes-citing-appeal-to-young-smokers/article29808294/>
- R.J. Reynolds Tobacco Company. (1972). Tobacco Flavoring for Smoking Products. Available at <http://www.leffingwell.com/download/TobaccoFlavorBook.pdf>
- Thrasher JF, Islam F, Barnoya J. et al., [2016]. Market share for flavour capsule cigarettes is quickly growing, especially in Latin America. Tob Control Published Online First[21 June 2016] doi:10.1136/tobaccocontrol-2016-053030
- Tobacco Control Legal Consortium. (2015). How Other Countries Regulate Flavored Tobacco Products. Available at <http://publichealthlawcenter.org/sites/default/files/resources/tclc-fs-global-flavored-regs-2015.pdf>
-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6).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United States, 2011–2015.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5. Available at <http://www.cdc.gov/mmwr/volumes/65/wr/mm6514a1.htm>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The scientific basis of tobacco product regulation (Vol. 945).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www.who.int/tobacco/global_interaction/tobreg/who_tsr.pdf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문의 TEL 02-3781-3500 FAX 02-3781-2299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시오.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 7월호 예고

2016년 7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목적세와 건강증진기금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목적세 개념 및 목적 ·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목적세에 대한 정책사례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